



양양소식

군정방침

I. 활기찬 지역개발
 I. 독특한 관광진흥
 I. 풍요한 복지실현
 I. 찬란한 문화창달
 I. 질 높은 자치구현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우리군은 수해관련 항구복구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9일 정연덕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종합지원단 구성을 위한 경직과 겸임 인사발령을 내고 항구복구 체제를 확정했다.군은 11개반 28개팀 92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 종합지원단 구성을 최종 결정하고 이날부터 각 반과 팀에 맞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수해복구 종합지원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항구복구 완료시까지 한시적 비상체제로 운영되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총괄팀과

재정지원팀, 홍보기록팀, 인력지원팀, 자원봉사팀 등으로 항구복구 업무를 세분화했다.



<사진설명> 수해복구단 발대식이 지난 12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진호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열려 항구 복구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지를 다졌다.

군의 항구복구 비용은 국비 4천2백56억원, 지방비 4백17억원(도비 2백12억원, 군비 2백5억원), 융자 3백1억원, 자체복구 44억원, 의연금 39억원, 자부담 33억원 등 총 5천92억원에 이른다.시설별 복구비는 공공시설 △도로·교량 1천8백27억원 △하천 9백14억원 △수리시설 6백36억원 △사방임도 2백1억원 △기타 4백52억원 등 모두 4천32억원을 차지하며 사유시설의 경우, △농경지 5백61억원 △주택 1백37억원 △기타 3백62억원을 포함해 1천60억원이다.또한 도로·교량 68개소, 수리시설 1백37개소, 소하천 39개소, 하천 18개소, 소규모 1백62개소 등 4백50개소의 피해를 기록한 수계별 복구는 이 가운데 피해규모가 큰 도로·교량을 포함해 64개소에 대해 우선 설계용역하고 22개소는 자체 설계한다는 계획이다.하천의 경우는 지방 1급과 2급, 여성정천, 면옥치천 등 4개 하천을 '강원도형 자연순응 산간계곡형 수해복구 지침'에 따라 통합용역을 추진하고 주택은 측량 및 설계비 감면, 행정과 재정 지원책 강구를 통해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히 우리지역이 태풍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가 심했던 점을 고려해 건설복구반을 기존의 4개 팀에서 도로·교량 복구팀, 상황관리팀, 농지복구팀, 하천복구팀, 소규모시설 복구팀, 토지보상팀 등 6개 팀으로 크게 늘렸으며, 농업인 피해보상 업무 폭주에 따라 3개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군수실 수해복구비리 고발센터 개설"

- 양양군 비리예방 차원... 수주로비 면담자 사절 -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가 완료되고 지난 1일부터 항구복구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은 지난달 16일부터 군수실을 수해복구관련 공직자비리 고발센터로 개설, 운영하는 등 비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군수실 출입문에 '수해복구와 관련 수주로비 방문자는 면담을 사절합니다'는 뜻을 부착하고 건설 수주에 따른 일체의 로비와 공직자비리 예방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군관계자는 "과거 철원지역의 수해복구에 따른 공직자비리 연루 등 부작용이 파생된 점을 감안해 복구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관찰시키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와 투명 행정 정착차원에서 발빠르게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태풍피해에 따른 항구복구가 이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가운데 설악권3개 시.군 중 우리지역이 가장 빠르게 군수실을 '수해복구 관련 공직자비리 고발센터'로 개설해 투명행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별 공동수해복구 추진위원회 구성 움직임"

- 집단 피해 농경지 효율성 극대화 바람직 -
- 농가 자체복구 자부담비용 조기확보 걸림돌 -

태풍피해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은 우리지역의 농가들이 농경지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를 마을별로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복구추진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풍피해 농가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관내 농경지 1천8백21ha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5백60억원 이상의 복구비용이 들어가는 등 부담이 높아 마을별 수해복구 공동추진이 바람직하다.특히 농경지 복구비용중 7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백68억원은 농자 등 농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이전부터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은 실제로 개별 피해복구 방안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정부가 확정 발표한 수해복구 지침에 따르면 농경지 피해는 개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공동복구 사업계획을 마련할 경우, 해당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을 미리 확보해야하는 등 공동복구에 따른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이번 태풍으로 막대한 농경지 피해를 입은 서면과 현북면, 손양면, 강현면 등 대부분의 마을 농가들은 피해조사 마감일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수해복구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복구효율을 극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대규모 개답지가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은 서면 주민들의 경우, 개별복구에 따른 소유농지 분쟁의 소지를 우려해 공동복구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군관계자는 "실제 피해조사를 나가보면 피해 농업인들의 공동복구 희망의견이 많다"며 "마을별 공동복구추진위원회는 이달말쯤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 정 소 식

"서울 관광홍보 캠페인 전개"

- 양양군의회... MBC,KBS,관악구 등 -

양양군의회(의장 박상형)은 수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관광활성화 모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사진설명> 지난 8~10일까지 이틀간 서울을 순회한 우리군 의회 의원들이 MBC를 방문, 가을 단풍관광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했다.



<사진설명> 우리군의회의원들이 관악구의의회를 방문하고 구의회 의원들에게 관악구민들이 단풍철을 맞아 양양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상형 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군의회 홍보단은 서울 MBC와 KBS, SBS 등 중앙방송 3사를 찾아 단풍철을 맞은 양양군의 관광홍보를 당부했

으며, 수해복구 지원에 힘쓴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양양군의회 박상형의장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해피해를 입은 양양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바라는 수도권 시민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중앙언론과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해와 빠른 시일내에 관광홍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안도로 개설사업 본격추진"

- 현남면 남애~지경리 3,166m 구간 2003년까지 70억 투입 -

군은 오는 2003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현남면 남애~지경리 3천1백66m 구간에 걸친 해안도로 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해양수산부의 착공이 승인되면 올 연말까지 국비 1억7천5백만원, 군비 1억2천2백만원, 도비 5천2백만원 등 모두 3억5천만원 등을 들여 1차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현남면 남애~지경리 구간의 실시설계는 지난 8월24일 3개월 과정으로 완료됐으며, 9월10일 해수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관광어항 개발과 함께 현남면의 해안개발에 중요한 역할이 될 해안도로 개발사업은 오는 2003년까지 나머지 사업비 66억5천만원을 투입해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가을 단풍철 '보은세일' "

- 10월 한달 숙박 30%·음식점 20% 할인 ... 관광홍보 역점 -

태풍피해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에 따라 단풍철인 이달부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숙박·음식업소의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보은세일’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관광활성화 특별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8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사회단체 대표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활성화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다각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모색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관광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양양군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달부터 단풍관광이 절정을 이루는 한달간 숙박업소는 30%, 음식점소는 20%선에서 할인하는 보은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그동안 수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7천8백명에게 ‘특별사은관광’을 펼쳐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따른 노고를 위로할 계획이다. 특히 양양지역 최대 관광지인 오색과 낙산사의 입장료 할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검토중이며 이같은 ‘보은세일’을 통해 내수진작은 물론 관광수요 증대에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일행사 희망업소를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업소에 한해 관광홍보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군은 관광활성화 캠페인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전국 각급 학교에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기존시책과 연계한 홍보·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군은 또한 태풍피해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을 해소하고 가을 단풍철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관광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고원주 관광문화과장을 비롯한 홍보단 11명을 서울에 파견,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 명동과 동대문, 혜화동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해오름의 고향, 관광 양양으로 오세요’ 등 양양지역을 홍보하는 어깨띠와 전단지 배부방법을 통해 전개한 홍보 캠페인은 수해지원에 나선 자치단체의 성원에 감사하는 내용을 포함해 실시했다. 군은 이번 서울홍보에 이어 춘천, 홍천, 양구, 인제 등 강원지역 4개 자치단체와 경기지역 8개 자치단체를 연이어 방문해 그동안 수해복구 지원에 나선 자치단체에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이다. 군은 홍보단 파견을 계기로 수해로 인한 자치단체간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관광홍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수해 피해를 입은 인접 지역에 비해 관광홍보 활동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번 홍보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

다”고 말했다.

"서면 주민 특공부대 '보은위문'미담 "

- 육군 8특공부대 장병들... 수해응급복구 노고위로 -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양양군 서면 주민들이 피해복구 당시,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치고 군부대로 돌아간 장병들을 '보은위문'차 방문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서면 이장단과 부녀회원 30여명은 지난 11일 고성군 현내면 군사분계선 내에 투입돼 작전 수행중인 육군 8특공대부대 장병들을 찾아 목욕비 1백만원과 김밥, 순대, 과일, 김치 등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수해 당시, 서면 수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8특공부대 장병들은 태풍으로 수리와 내현리 등이 1주일간 고립되자 험한 산길을 통해 식량을 보급했으며 서면 일대에서 응급복구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특히 특공대 장병들은 수해로 범람한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급물사를 헤치고 남대천을 건너 위기에 처한 내현리 주민을 구조하고 식량까지 전달하는 군인정신 특유의 투혼을 불살라 감동을 주었다.서면 이장단협의회 이근배회장은 "한달 이상을 수해 응급복구에 참가해 도와준 장병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도 못해주고 떠나보내 아쉬웠는데 이렇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어 마음이 푸근하다"고 말했다. 서면 주민들의 방문을 받은 특공부대 장병들은 "작전 수행 중 막대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창상을 보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수해에서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고립지 주민구출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위문방문을 해주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 일본국 잇따른 수재민돕기 '진한감동' "

- 재일교포 거류민단, 록카쇼촌 수재의연금 전달 -

사상초유의 태풍피해를 입은 우리군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자치단체는 물론 일본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지난주부터 거류민단 방문 등 우리지역에 '일본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부산아시아게임 참관을 위해 입국한 재일교포 거류민단 미에현 우에노지부 회원 20여명이 지난달 9월30일 양양군을 방문하고 수재의연금 1백20만원을 전달, 위로했다.재일교포 거류민단 회원들은 이진호 군수와 면담을 통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열리고 있는 송이축제현장체험에 참가하는 등 진한 동포애를 나눴다.또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록카쇼촌 교류단은 총장을 포함한 3명이 지난 5일 수해 위문차 우리군을 예방하고 1천만원의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등 그동안 양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보여줬다. 일본 록카쇼촌 방문단은 수해현장 방문과 함께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돌아갔다.

" 열린의사회 양양지역 의료봉사 "

- 군보건소 컨테이너 1백53동 진료실시 -

군보건소는 지난 3일 (사)열린의사회(회장 이무일) 소속 의료진 30명과 함께 서면 내현리와 수리, 용천리, 현북면 어성전리, 원일전리 등 수해지역을 돌며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의사 15명을 비롯해 3개팀 30명으로 구성된 열린의사회 의료진은 이날 내과, 치과, 한방,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목에 걸쳐 수해복구 도중 몸을 다쳐 거동이 불편하거나 피로에 지친 주민 4백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봉사에 나섰다.연일 계속된 수해복구로 그동안 병원조차 찾지 못하던 주민들은 다양한 병증을 호소하며 군보건소와 열린의사회의 의료봉사활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군보건소는 오는 12일까지 의료진 3명을 투입, 수해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1백53동에 대한 환자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31일까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공수의사를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을 편성해 소와 돼지, 개, 닭, 꿀벌 등 가축류 동물들에게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예방접종 대상가축 가운데 소는 전염성기관염, 탄저, 기종저 1천두, 돼지는 전염성위장염 5천2백두, 개의 경우는 광견병 2천두, 닭은 뉴 캐슬병 2만수분, 꿀벌은 응애류 2천5백4군분에 해당하는 약품을 공급한다.군은 특히 이번 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수해 이후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발생 차단에 따른 방역활동과 수질검사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양양군 현안사업 본격추진 "

- 태풍피해 중단 공사 착공 ... 어촌관광어항 개발 박차 -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라 그동안 잠정 중단된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군에 따르면 당초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된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해 관광안내센터 건립, 낙산해변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포장, 성황당 사직당 신축 등이 계획대로 공사에 들어간다.또한 강현면 전진항과 후진항, 손양면 오산항, 현북면 기사문항, 현남면 인구항과 광진항 등 관내 6개 항포구에 대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추진된다.우리지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국비 7억5천만원과 군비 7억5천만원 등 모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 67m, 방사제 30m를 연장, 정주어항 개발을 통한 관광어항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8월19일 공사에 들어가 공정을 70%를 보이며 이달 완공될 예정이던 현북면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도 이달부터 세부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추진해 오는 11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군은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조각공원 협약서 마련을 위한 군의 기본안을 채택하고 의회 및 투자희망자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주민공청회를 거치는 등 우리군의 주요현안 사업으로 향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전면 재추진이 확정되면서 입지선정 위원회 조기구성을 비롯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양양관내 산물벼 수매실시 "

군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1월15일까지 양양농협과 고려곡산을 통해 산물벼 3만1천가마를 비롯해 포대벼 3만1천6백40가마 등 모두 6만2천6백40가마를 수매할 계획이다.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산물벼 수매는 양양관내 벼농가를 대상으로 양양농협 미곡처리장과 고려곡산, 현남 미곡초리장 등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올해 산물벼 수매 물량은 40kg 기준, 고려곡산 2만2백25가마와 양양농협 1만7백75가마 등 모두 3만1천가마로 수매가는 지난해 신설된 특등급의 경우는 6만2천4백40원, 1등급 6만4백40원, 2등급 5만7천7백60원, 등외 5만1천4백10원 등이다.관내 읍·면별 산물벼 수매량은 현남면 7천7백15가마, 강현면 7천3백20가마, 손양면 5천6백70가마, 양양읍 4천7백55가마, 현북면 4천70가마, 서면 1천4백70가마 순으로 이같은 수매량은 태풍 루사의 막대한 농경지 피해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 양양군행정동우회 50명 상운리서 벼베기 지원 "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지역 벼베기 일손부족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양양관내 사회단체와 일선학교 학생들의 벼베기 지원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양양군행정동우회(회장 김남하) 회원 50여명은 손양면 상운리를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벼베기 지원에 나섰다. 양양고 학생들과 교사 등 2백70여명은 16일과 17일 이틀간 서면 수리와 북평리에서 수해로 흩더미에 매몰된 벼베기 돕기를 실시했다.학생들의 현장체험으로 실시된 이날 벼베기 지원은 우리지역 농촌에서 생산되는 벼 수확의 중요성과 황폐화된 농경지 참상을 직접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수해온정 및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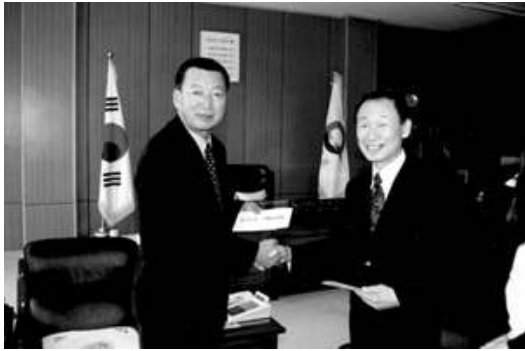


<법해사 의연금 전달> 자매결연 도시인 군포시 법



<관동대 수재의연금 전달> 관동대 유병진 총장이

해사 주지와 신도들이 지난 10일 군청을 방문해 수재의연금을 전달



<룩카쇼촌 의연금 전달> 룩카쇼촌 방문단은 이달 군청을 방문하고 수재민에게 써 달라며 의연금을 기탁했다.

거지안달 25일 이진호 군수에게 수해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북한 고려항공 도착> 경수로 사업단 직원을 태운 북한 여객기가 지난15일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다이센정 의연금 전달> 일본 다이센정 관계자들이 이진호군수에게 수재민 돕기 의연금을 전달하는 모습



<송이축제 만찬회> 성황리에 막을 내린 송이현장체험을 자축하는 만찬회가 지난 2일 개최됐다

"수재민돕기 '사랑의자선바자회' "

- 양양감리교회 주최... 주민 2천명 참가해 온정 -

우리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수해복구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양양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양양시장 상인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마련된 수재민돕기 자선바자회가 열려 이웃간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양양감리교회(목사 김한구) 주최로 개최된 이날 자선바자회는 침수피해를 입은 양양시장 상인들이 기증한 의류와 과수농가가 기탁한 과일을 비롯해 건어물류, 마른오징어, 미역, 김밥, 장신구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선보이며 수재민돕기 이색 '양양장터'로 개최됐다. 태풍피해 이후 양양지역 주민돕기 차원에서 처음 열린 이날 자선바자회는 수해피해를 입은 상가주민 등 2천여명 이상이 다녀가 이웃간 수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간간이 내리는 가을비 속에도 수해를 입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열린 자선바자회에는 1천원짜리 옷부터 수재의연금을 직접 전달하는 주민들까지 '십시일반'의 정성이 담지하는 등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졌다. 수해피해를 당한 양양감리교회 교인 60여명도 동참해 수재민돕기에 나선 이날 행사는 1천원짜리 의류가 2백70만원 가량 판매됐으며, 2백만원 이상의 즉석 수재의연금이 모금되는 성과를 올렸다. 태풍의 최대 피해지인 양양지역은 총 1만세대 가운데 3천세대 이상이 이재민으로 등록돼 있으나, 일반 세대의 경우도 수십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실제로 3만 양양주민 거의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이날 자선바자회는 주민들간의 수재민돕기 공감대가 형성돼 성황을 이뤘다. 자선바자회 실무를 맡은 양양감리교회 손정호권사는 "수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상가 주인들이 십시일반 수재민돕기를 위해 물품을 보내줘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며 "이같은 작은 정성이 모여 수재민들이 재기하는 밑바탕이 되리라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도울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지역 수재민돕기 사랑의 자선바자회를 주최한 양양감리교회는 주일 결산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수재민돕기 성금으로 양양군청에 기탁했다.

"시모음집 '까만 손' 발간 화제 "

- 오색초등생 20명이 쓴 1백40편 수록... 탁동철교사 도움 -

설악산 아래 첫 동네인 오색에 위치한 오색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4년간 틈틈히 적어 내린 1백40편의 시를 소중히 담아 엮은 시 모음집 '까만 손'이 발간돼 화제다. 학생들의 동심의 세계를 모음집으로 엮어낸 주인공은 당시 오색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탁동철 교사. 현재 서면 상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탁 교사는 4년전 오색초등학교 재직 시절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해마다 문집을 통해 만들어오다 지난달 추석전 그동안 모은 1백40편의 자작시를 모음 집으로 발간했다. 전교생이 고작 20명에 불과한 아담한 시골학교인 오색초등학교는 전교생이 '꼬마시인'으로 불리며 전원적 풍경 속에서 자연과 벗삼은 학교생활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참다운 인성교육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색초교 시 모음집 '까만 손' 발간의 토대를 마련한 탁 교사는 4년간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논갈이, 밭갈이, 타작 등 농촌 일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성을 가꾸는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닭이나 오리, 토끼를 기르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동심의 마음을 일상에서 이끌어내 시에 적용하는 자연학습을 실시, 인성교육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얻어냈다. 오색초등학교 학생들의 시 모음집 '까만 손'은 휴과 함께 성장하는 학생들의 손을 자연에 비유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구열만을 강조하는 요즘 학생들이 지니지 못한 맑은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참교육의 의미를 다하고 있다. 탁동철 교사는 "오색은 우리나라의 전형적 기후 조건인 사계가 뚜렷해 자연스레 심성교육이 이뤄진 것이 글로 표현된 것 같다"며 "고사리 손들이 써 내려간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돼 무척 기쁘다"고 했다.

"태풍피해 뚫고 양양남대천에 연어가 돌아온다"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로 불리는 연어가 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양양 남대천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내수면연구소가 지난 11일부터 연어알 채란을 위한 본격적인 채포작업에 들어갔다. 내수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9년에 방류한 3년생 연어가 본격 회귀함에 따라 올해 1만4천마리의 회귀연어를 포획하고 1천2백만개에 이르는 연어알을 채란할 계획이다. 내수면연구소는 지난 태풍피해로 채포장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올해 연어방류사업을 위한 신속한 복구를 통해 회귀연어에 대한 채포 작업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0월초부터 양양읍 임천리와 서면 용천리로 회귀를 시작한 연어에 대해 투망과 낚시 등 일부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남대천 하구에도 주말이면 수십명이 몰려 연어를 잡고 있으며, 야간투망 행위가 성행해 3년간 여행을 마치고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산란도 하기전에 수난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회귀하는 연어는 지난 99년 방류한 연어치어로 북태평양을 휘돌아 모천인 양양남대천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으며, 매년 6백만 마리에 달하는 활발한 연어치어 방류사업을 펼치고 있는 양양내수면연구소는 20만 마리 이상이 회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태풍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바다와 연결되는 남대천 하구가 넓어지는 등 자연환경 호전과 회귀에 따른 걸림돌이 없어져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수면연구소 관계자는 "태풍루사로 채포장 시설이 유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신속한 복구로 올해 연어채포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며 "이달초부터 올라온 연어의 경우, 채포해도 채란이 불가능하고 11일 이후에 포획해 채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어회귀가 본격화됨에 따라 양양내수면연구소는 성행하는 불법포획 방지를 위해 양양군과 합동으로 야간불법포획 단속을 펼치는 등 연어채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올해 양양군이 개최할 예정이던 연어축제는 태풍피해로 전면 취소됐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인기 "

우리군 여성회관(관장 이향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교실이 관내 여성들에게 취미생활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4개월간의 일정으로 개강한 여성회관 교육교실은 조리사 자격증반을 비롯해 에어로빅, 서양화, 요가, 한국무용, 꽃누르미, 수지침 등 14개 과목 22개반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개강과 동시에 3백30여명이 신청해 인원을 초과한 가운데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고 있는 조리사 자격증반과 노래교실 등은 소위 '잘나가는 교실'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조리

사 자격증반의 경우, 지난해 수강생의 60%가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재인 여러분 우리다시 일어 섭시다"

<양양군청 건설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신고 안내

- 그동안 1일 30톤 미만의 농업용 지하수 신고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장소 - 양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문의처 : 033-670-2230>

■ 신고대상

- 이미 사용중인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가정용 지하수 시설

- 이미 사용중인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굴착지름 40mm이하)지하수 시설. 11월 17일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양양지사>

건강보험료 경감사항

■ 경감대상

- 보험료경감대상 : 수해발생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에서 수해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
(단,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은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보험료경감 대상자에서 제외됨)

■ 경감방법

-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공단 정관규정에 의거 보험료의 30~50%를 경감(농어촌 경감등을 포함하여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음)

<물적피해>

·1등급(50%) : 피해정도가 80%이상(주택·농경지 등의 완전 침수, 유실 등)

·2등급(40%) : 피해정도가 50~80%미만(주택 등의 일부침수, 유실 등)

·3등급(30%) : 피해정도가 50%미만(주택·농경지 등의 부분 침수, 유실 등)

<인적피해>

·1등급(50%) : 가입자의 사망, 실종 등

·2등급(40%) : 중상(입원 4일 이상)

·3등급(30%) : 중경상(입원 3일 이하)

■ 경감기간

- 물적·인적 피해 동시발생(6개월), 한가지 피해만 있는 경우(3개월)

<문의처 : 033-671-8681, 인터넷 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2002.10.1~10.31) 운영

- LG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 어느 곳이나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LG카드, 인터넷, 전화납부 방법 :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dr.kr)참조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고용·산재보험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645-6805~6)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중증 휴유장애 4급(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기준)이상을 판정받은 자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 지원종류
 - 재활보조금 장애를 입은 4급이상 본인 월15만원 평생지원
 - 피부양보조금 사고당시 부양했던 현재 65세 이상 노부모 월15만원 평생지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18세미만의 자녀 월20만원(1인당) 대출금은 자녀가 성장한 26세 이후부터 15~20년 상환
- 신청 및 지원 : 연중 접수하며 신청 접수 신청서 교부 및 문의처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
교통안전공단 복지지원과 (Tel. 033-261-5000)

<해양 수산부·경찰청>

- 해양오염 등 신고포상금(보상금) 제도
 -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보상금)
 - ※ 신고자에 대한 개인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신고전화 :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 국번+5050>

<강원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사황에 처한 여성긴급전화로 24시간 365일 운영
 - 전화상담 : 033 - 국번없이 - 1366
 - 인터넷 : www.1366.or.kr
- <비밀상담을 원하시면 비공개 상담실을 이영해 주십시오.>

<농림기술개발사업 2003년도 농업인개발과제 추진계획>

- 공모 기간 : 2002.10.21~11.14
- 신청서접수기관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문의전화 : 671-5959, 670-2369>

구호의연품 접수현황

- 보내주신 성원에 군민들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권선의	김포시 자기동 228 홍천군청	이불2채 쌀(20kg)80포, 라면 80박스, 쌀(10kg)20포, 내의 81개, 휴대용버너 100개, 부탄가스 196개, 체육복 162벌, 장류세트 110개
	강현면 전진1리<주민일동> 강현면 전진1리<노인회일동> 낙산일출방범대 일동	오십만원상당물품 일십만원상당물품 삼십만원상당물품
이중대 차태환	양양라이온스클럽 경기도 광주 태전동 62(양양소재 한솔빌라) 속초번호사사무직원일동	일백만원상당물품 야외용비닐돛자리 500매 생필품세트 10개
유귀범	양양읍 남문1리 6반<반원일동>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주민자치회일동	일십오만칠천원상당 물품 팔백이십칠만오천원상당물 의류25박스, 이불4박스, 한과4박스
	양양군내 노점상인일동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양양군 중화요리협회 양양읍 <제일반점> 양양읍<너래바위식당>	사십구만원상당 농산물 상품권 약수(20ℓ) 250 가정용가스렌지 5대 가정용가스렌지 2대 가정용가스렌지 2대
김옥남 최종숙 김춘봉	낙산사불교합장단 대전시 서구 삼천동 986 가람APT 3-605 인제읍 함강1리 4반 한나라 노원감지구당	가정용가스렌지 10대 의류 재활용2박스, 김10개 의류재활용 1박스
김희태	양양읍 임천리	티셔츠 2박스, 잠바2박스, 물통50박스
성원관세사법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319-25 구노세관내별관 202호	일십만원상당물품 육십구만원상당물품

<구호 의연금 접수현황>

--	--	--	--

물품명	누 계	금일	잔량(재고)	비 고
계	17종	13종		
쌀	681호	17포	57포	20kg
라면	1,712상자	612상자	961상자	
생수	8801상자	965상자	2921상자	
빵,우유	31200개	30400개	16870매	
구호세트	3533개	233매	211매	
수건	1100개	300개		
이불	620매	350매	350매	
추리닝	290착	120착	120착	
양초	4210개	600개		
트리오	10상자	3상자		
세면비누	224세트	16세트	360세트	
부탄가스	210상자	10상자	74상자	
김치	20상자	10상자		
현금	35700천원	14550천원	50250천원	
떡, 밥	7두	1상자		
기타	120점	922점	764점	

<적십자 구호품 배부계획>

구분	반바지	티셔츠	남여속옷	여성내의
계	1,500	1,500	1,000	1,000
양양				
서	450	450	300	300
손양	105	105	70	70
현북	330	330	220	220
현남	345	345	230	230
강현	270	270	180	180

※ 전파, 반파가옥 기준으로 우선지원
기타 1천여 개인·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의연품이 답지했습니다.